

왕이 사랑한 보물...바로크 예술의 정수 만난다

국립광주박물관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 전

준비기간 1년 6개월·전시품 보험액 813억 대형 기획전
작센의 제후 강건왕 제작·수집한 예술품 130점 선 보여
4월 8일까지...전시 관련 강연·카메라타 안티파 연주회도



‘여성 형상의 술잔’



‘붉은 용 식기 세트’



‘다이아몬드 장식세트 중 검과 칼집’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군복’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19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과 함께 ‘왕이 사랑한 보물-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을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준비기간만 1년 6개월, 전시품의 보험평가액이 813억원에 이르는 불특박스전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을 대표하는 그린볼트박물관, 무기박물관, 도자박물관의 소장품 130건을 엄선하였다. 모두 드레스덴을 18세기 유럽 바로크 예술의 중심지로 이끈 작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의 왕 ‘강건왕 아우구스투스’(1670~1733)가 제작하고 수집한 아름다운 예술품들이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이번 전시의 주인공인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착용하고 사용했던 군복과 무기가 중심이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위엄과 권위를 살펴볼 수 있는 예술품들로 초점을 맞췄다.

2부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보물의 방인 ‘그린볼트’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그린볼트는 선제후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귀중한 보물에 강건왕이 제작하고 수집한 것들이 더해져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큰 왕실 예술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린볼트박물관은 강건왕이 직접 소장품을 분류해 전시한 곳으로 유럽 최초의

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아, 청동, 은, 보석 등 재질에 따라 분류한 각각의 방에서 가려 뽑은 명품을 선보인다.

3부에서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재위 기간에 수집하거나 제작한 도자기들을 소개한다. 18세기 유럽에서 도자기는 ‘하얀 금’이라 불릴 만큼 귀하고 인기있는 물품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유럽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강건왕은 요한 프리드리히 보트거를 시켜 유럽 최초의 도자기인 ‘마이센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자신감을 얻

은 강건왕은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도자기 및 마이센 자기로 장식한 ‘도자기 궁전’을 만들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나 끝내 완성하지는 못했다.

이 전시에서는 왕이 직접 그린 배치도에 따라 ‘도자기 궁전’을 부분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한 왕의 꿈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확대 사진 기술’을 이용한 전시 연출 기법이다. 2부 ‘그린볼트’로 들어서면 본래 전시공간인 드레스덴 궁전을 촬영한 초고화

질 사진이 배치돼, 실제 그린볼트박물관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전시에 출품되지 못한 다른 대표작들을 초대형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재위 시대의 대작 중 하나인 ‘무굴제국 아우랑제브 황제의 왕좌’의 확대사진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충격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 전시와 연계한 강연과 음악회도 마련돼 있다. 먼저 첫 번째 강연(2018년 1월17일)은 박물관 소강당에서 방송통신대 김정락 교수가 ‘18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의 미술 교류-드레스덴박물관연합 소장품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두 번째 강연(2월 21일)은 이가영 성신여대 교수가 ‘18세기 드레스덴 궁정 음악과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바흐’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마지막 강연은 국립민속박물관 임진아 씨가 ‘동아시아의 무역도자와 마이센 도자-유럽 경질자기의 탄생’에 대해 발표한다.

3월에는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를 주제로 카메라타 안티파의 연주회가 열린다.

티켓 가격 성인(만19세 이상) 7000원, 초·중·고등학생 6000원, 아동(48개월 미만) 및 65세 이상 5000원. 문의 1644-2625, 062-570-703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다’ 세 번째 포럼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세 번째 포럼이 오는 20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강당에서 열린다.

‘민선 6기 문화정책과 사업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 광주예총(회장 최규철), 상상실현네트웍(대표 정두용) 세 단체가 참여한다.

포럼의 좌장은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으며, 박경섭 5·18 연구

소 전임연구원이 ‘민선 6기의 문화정책과 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정민곤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문화정책과 행정),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청년 문화), 송영은 광주예총 사무처장(예술 행정), 원광연 아트컴퍼니 원 대표(문화 현장), 정진삼 장애인문화협회 회장(장애인 문화), 이정현 1% 공작소 대표(문화 기획)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10-2647-1727. /전은재기자 e6621@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국제교류 참가자 모집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지역 청년작가의 창작활동과 세계 미술무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8 국제레지던시, 국제교류 참가자(작가 3명, 기획자 1명)를 모집한다. 또한 북경창작센터 2018 하반기(7~12월) 기획 부분 입주자도 추가로 모집한다.

국제교류 파견기관은 대만 타이난 사울롱 아티스트 빌리지(Soulang Artist Village), 독일 뮌헨시 문화부 국제레지던시, 대만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Taipei Artist Village), 대만 타이페이 국립 미술대학, 관두미술관(Kuandu Museum of Fine Arts)이다.

국제교류 참가자는 이들은 각 교류기관에 파견돼 오픈스튜디오,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각 파견기관에서 스튜디오와 거주공간, 오픈스튜디오 및 전시회 지원을 받게 되며, 광주시립미술관은 국제항공료와 창작지원비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45세 이하(북경은 55세) 광주지역 출신 작가로 외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2018년 2월 2일까지며 2월 26일 최종 선정작가를 발표한다. 문의 062-613-7151, 7156. /김미은기자 mekim@

KTX-역사기획전시 ‘남도의 화가’

19일~28일

나주 빛가람전망대



▶한임수 작 ‘붉은 갯벌’

(사)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회장 광형수 남포미술관장)는 제2회 KTX-역사기획전시 ‘남도의 화가’를 19일부터 28일까지 나주 빛가람전망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남도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동민·박성태, 박주생·박지호·장안순·한임수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한

국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출범 2년째를 맞는 (사)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가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TX-역사 기획전시는 각 지역 역사 주변에서 전시를 개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애장 전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첫번째 행사는 지난해 12월 목포역사 클로리미술관에서 열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어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